

Chapter

# 01

## 너무나 신기한 민족, 유대인

### ■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운 유대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로 약 38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 역사 동안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어 왔고, 그들의 정체성을 유지해 왔다. 그들이 나라다운 나라를 가진 것은 3800년 역사 중에 초대 왕인 사울 왕에서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500여 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 나머지는 모두 다른 곳에 포로로 끌려가 있거나, 식민지였거나,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다. 특히 로마 티토스 장군에 의해 기원후 70년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된 이후로는 그 땅에 거주하지 못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아야 했다. 그러다가 1948년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세웠다.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내며 세계 각지에서 다른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2000여 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 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수천 년 동안 지켜 왔기 때문이다.



유대인 학생들은 공부할 때 짝을 지어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며 떠들면서 공부한다.

19세기 말부터 러시아, 폴란드 등 동구권에서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시작되었다. 동구권에 있던 유대인들은 핍박을 피해 풍요와 가능성의 나라 미국으로 몰려갔다. 그러나 시온주의 운동에 공감한 일부 청년들은 ‘약속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 민족국가 재건의 꿈을 키워 갔다. 벤구리온을 정점으로 한 유대 민족 지도자들은 세계 곳곳에서 돌아오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정착시켰다. 그들은 정당과 유대인 기구, 주민 대표기구 등 준국가적인 기구들을 조직하였고, 지하 군사 조직을 창립하였다. 그러면서 독립 국가 건설을 위한 주춧돌을 놓아 갔다. 벤구리온을 비롯한 이들 지도 세력은 1920년대부터 유대 민족의 지도자로 부상하였다.

나치 독일은 유대인의 3분의 1을 학살하였다. 이 사건은 역설적으로 이스라엘 독립의 씨앗이 되었다. 유대인 600만 명 학살과 제2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 건국의 기회가 되었다. 유대 민족 지도자들은 이러한 역사적인 큰 흐름을 잘 이용하였다. 그리하여 2000년 만에 다시 나라를 세우는 기적을 이루었다. 1948년 독립선언 이후 불과 3년 만에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두 배로 늘어났다.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의 건국이 선포되자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엔게디 계곡에서 우연히 만난 유대인 가족들. 2~3세 된 아이들이 험한 산을 직접 걸어서 올라가고 있다.

이라크 등 아랍 국가들은 곧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독립 전쟁 기간에 조직되어 매우 빈약했으나 15개월간 지속된 맹렬한 전투에서 승리했다.

1949년 5월 11일, 이스라엘은 유엔의 59번째 회원국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와 아무런 제약 없이 살 수 있는 권리를 오랜 투쟁으로 쟁취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을 선포하자마자 시작된 독립 전쟁을 포함해 여섯 차례 전쟁을 겪었다. 독립 전쟁(1948), 시나이 작전(1956), 6일 전쟁(1967), 이집트와의 소모전(1968~1970), 10월(욥 키푸르) 전쟁(1973), 레바논 전쟁(1982)이 그것이다. 현대 이스라엘 역사의 분수령이 된 전쟁이 그 유명한 6일 전쟁이다. 애꾸눈 모세 다얀 장군이 국방 장관으로서 활약한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로부터 골란 고원, 가자 지구, 요르단 강 서안 지구, 시나이 반도 등 자기 영토의 세 배나 넘는 넓은 지역을 점령했다. 불과 6일 만에 일어난 대사건이었다. 통곡의 벽을 다시 탈환하는 감격을 맛보았다. 그리고 순식간에 감람산, 구 예루살렘 성, 베들레헴, 헤브론, 세겜, 예리고 등 자기 민족의 성지들을 점령해 갔다.

## ■ 기적의 땅 이스라엘과 세계 곳곳의 유대인

이스라엘의 국토 면적은 2만 제곱킬로미터이다. 이는 한반도의 11분의 1, 남한 땅의 5분의 1 정도 크기다. 그러나 남북의 길이가 500여 킬로미터로 매우 길고 산과 광야, 평야, 바다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느껴진다.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 이후 60여 년 만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을 기준으로 세계 24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우리 한강의 기적처럼 기적에 가깝다. 남한 인구의 16퍼센트에 불과한 이스라엘의 2015년 1인당 GDP는 3만 7천 달러 정도로 한국의 2만 8천 달러보다 1만 달러 정도 높다. 이는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 주변 모든 나라의 GDP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199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1인당 국민소득(GNP)이 서로 비슷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7년 이후 계속 2만 달러 근처를 맴돌고 있는데 반해, 이스라엘은 계속 상승해 우리를 앞질렀다. 1961년 우리나라의 1인당 GNP가 73달러에 불과할 때, 이스라엘은 이미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서 우리의 열 배가 넘는 814달러를 기록했다. 당시 일본의 1인당 GNP는 502 달러였다.

이스라엘의 인구는 800만 명 정도로 유대인이 약 75퍼센트인 600만 명 정도이고, 아랍계와 다른 민족이 200만 명 정도로 약 2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종교는 유대교가 77퍼센트, 이슬람교가 16



갈릴리 호수 배를 타는 곳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춤을 추면서 놀고 있다. 유대인 아이들은 어디서든 어울려 즐겁게 놀이를 즐긴다.



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

오늘날 유대인은 전 세계 134개국에 흩어져 살고 있다. 세계의 유대인 인구는 정확하게 통계를 내기가 매우 어렵다. 대체적으로 적게는 1300만 명에서 많게는 15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으며, 미국에 700만 명, 이스라엘에 600만 명, 프랑스에 50만 명, 캐나다에 40만 명, 영국에 30만 명, 러시아에 20만 명, 라틴 아메리카에 50만 명 정도 거주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 인구의 0.2퍼센트에 불과하다.

19세기에는 세계 유대인 총수의 약 80퍼센트, 1930년에는 약 60퍼센트 정도가 유럽에 있었다. 그러나 나치의 유대인 박해로 유럽 유대인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전 세계 유대인 인구가 1800만 명 정도였으나 히틀러가 집권하는 나치 독일의 유대인 대학살(Holocaust)로 1200만 명 정도로 줄어들었다.

현재 전 세계 유대인의 절반 정도인 약 700만 명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그중 3분의 1이 넘는 250만 명 이상이 메트로 뉴욕인 뉴욕, 뉴저지, 코네티컷 3개 주에 살고 있다. 뉴욕의 가장 변화한 지역인 맨해튼에서는 유대인 복장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 일이다. 메트로 뉴욕 곳곳에 유대인 회당이나 유대인 센터가 있으며, 유대인 명절에는 이 지역의 초중고를 비롯한 대부분의 회사들이 쉴 정도다.

## ■ 130개국에서 이민 온 80개 언어의 사람들

이스라엘은 세계에서 100번째로 작은 국가이고, 인구는 세계 인구의 5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스라엘 국민은 전 세계 130여 개 국가로부터 이주해 온 사

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전 세계 80여 개의 언어를 사용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따라서 같은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피부색이나 문화 습관, 행동 양식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매우 독특하다. 국가의 독립 이후 유럽 각지에서 이주



유적지에서 만난 유대인 가족들. 유적 하나를 놓고, 가족들끼리 질문하고 대화, 토론하면서 30분 이상을 하브루타하고 있었다.

해 오는 사람들과 아프리카, 아시아, 미주 등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흡수하고 있어 이스라엘은 다양한 언어, 다양한 문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 복적이다.

이스라엘은 외부와의 싸움이 없었다면 내부 갈등으로 인해 벌써 무너졌을지도 모른다.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갈등, 주변 국가들과의 갈등, 반유대주의와의 갈등 등 외부와의 수많은 갈등 때문에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 이스라엘의 내부 갈등은 치열하다. 미리 정착한 사람과 새로 이민 온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있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이민 온 사람들 사이에도 관점이나 문화 등의 차이가 심각하며, 세대 간의 갈등과 빈부격차에 의한 갈등도 있다. 종교인과 비종교인 간에도 심각한 갈등이 존재한다. 이스라엘에서 종교인은 군대에 가지 않고, 국민 세금의 상당 부분을 지원받는다. 그에 대해 일반 국민들은 불만을 갖지만, 종교인들은 비종교인들이 유일신을 잊고 유대인의 전통을 버렸다고 비난한다.

이스라엘에 유대인과 유대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예루살렘만 보더라도 황금사원 안에서는 코란을 읽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황금사원 밖의 통곡의 벽에서는 토라를 읽는 소리가 들린다. 그런가 하면 통곡의 벽 바깥쪽에서는 기독교 성지 순례자들이

부르는 찬양 소리가 뒤섞여 들려온다.

필자가 보기에 이스라엘 땅에 유대인끼리만 살게 하지 않고 아랍인과 섞일 수밖에 없게 한 것도 어쩌면 유일신의 섭리일 거라고 생각되었다. 먼 바다에서 잡은 고기를 도시로 이동할 때 그것을 살아 있게 하는 방법으로 게 같은 것을 함께 집어넣는다. 오징어나 광어 등 한 가지만 담아 이동하면 죽는 경우가 많지만 그 속에 게를 집어넣으면 게에게 물릴까 봐 긴장해서인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스라엘이 안팎으로 겪는 갈등은 2000여 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이미 내재된 것이다. 원래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과의 갈등, 주변 아랍 나라들과의 갈등은 필연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130여 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언어와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생김새도 달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은 한편으로는 이민족 이질문화권 속에 어떻게 동화되어 살아갈 것인가와,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하고 보존시켜 나갈 것인가의 두 가지 극단적인 삶의 방식을 동시에 추

구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었다.

유대인들이 살아온 지역적 차이와 시대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유대 교육의 중심에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유대인 학생들은 탈무드 책을 펴 놓고 둘씩 짝을 지어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하면서 공부한다.

교육 내용, 즉 종교의식, 성경, 히브리어, 유대 문학과 사상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런 공통성이 그들로 하여금 나라를 회복하게 했고, 유대인이라는 한 테두리 안에 뭉칠 수 있게 했다.

## ■ 의무교육을 가장 먼저 시작한 민족

유대인들은 이미 2000년 전에 무상 의무교육을 시작한 민족이다. 예시바라는 학교를 시작한 사람은 요하난 벤 자카이이고, 무상 의무교육의 계기가 된 사람은 랍비 힐렐이다.

이스라엘이 로마 식민지 상태이던 AD 66년에 강경파들은 로마를 향해 반란을 일으켰다. 로마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했다. 그때 로마의 군 사령관은 베스파시아누스였다. 그의 아들이 티투스 장군이다. 베스파시아누스는 반란군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노력했다.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조금씩 진압해 나갔고 마침내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다.

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자 성 안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다. 그는 항복하면 살려 주고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고 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는 강경파와 온건파가 치열하게 싸웠다. 온건파는 항복해서 나라를 보존하자는 것이고 강경파는 끝까지 싸우자는 입장이었다. 강경파들은 항복하려고 성을 빠져나가는 사람을 배신자로 간주하여 다 죽였다.

그때 온건파 중에 요하난 벤 자카이라는 랍비가 있었다. 그는 강경파의 무장투쟁이 성공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자카이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흑사병에 걸렸다고 소문을 내게 했다.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 장례식처럼 꾸며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왔다.

성을 나온 벤 자카이는 베스파시아누스 사령관을 찾아갔다. 그는 그를 보자마자 “당신이 머지않아 로마의 황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의 예언처럼 황제가 된다면 유대 경전을 공부할 수 있는 조그마한 마을만은 파괴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과연 벤 자카이의 예언대로 68년 반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네로 황제가 자살하고, 정치군인 갈바와 오토, 비텔리우스가 몇 달 만에 암살되었다. 이듬해인 69년 원로원은 유대 반란군 진압에 나가 있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을 급히 황제로 추대했다. 로마로 금의환향한 베스파시아누스는 벤 자카이의 약속을 지켜 야브네(Yavne)에 최초의 예시바 설립을 허락했다. 그리고 남은 예루살렘 정벌은 아들 티투스에게 맡겼다.

이듬해인 70년 티투스에 의해 드디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 처참한 살육과 파괴가 자행되었다. 그 파괴는 그야말로 돌 위에 돌이 얹어져 있는 경우가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여기서 남은 패잔병 960명이 천혜의 요새인 마사다로 피신했다. 그들은 다시 3년간 세계 최강 로마 군단을 조롱하다 73년에 결국 전원이 자결하면서 장렬한 최후를 맞았다.

이것이 유대인의 전통 교육기관인 예시바의 기원이다. 예시바가 있었기에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도 교육을 통해 유대인의 정체성을 전수할 수 있었고, 랍비를 길러내 각 나라와 지역으로 파견할 수 있었다. 지금도 유대인이 모여 사는 곳에는 거의 예시바가 세워져 있고, 토라와 탈무드를 하브루타를 통해 배우고 있다.

무상 의무교육의 직접적인 계기는 랍비 힐렐과 관련이 있다. 힐렐은 랍비가 되고

싶었으나 너무 가난했다. 그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면서 랍비학교에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병이 나서 얼마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 얼마 후 그는 병이 다 나았지만 일자리를 잡지 못했다. 먹을 것이 떨어지고, 수업료도 떨어지고 말았다.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던 그는 날이 어두워지자 예시바로 갔다.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 햇빛이 잘 들도록 나 있는 창문 위에 었드렸다. 창문에 귀를 대고 랍비의 강의를 들었다. 그러다가 피곤에 지쳐 자기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고 말았다. 수업을 마친 학생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는 계속 자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예시바에서 아침 강의를 시작되었다. 교실 안은 날씨가 맑은데도 어두웠다. 천정을 보니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뭔가가 막고 있었다. 랍비와 학생들은 모두 깜짝 놀라 지붕으로 올라가 청년을 끌어 내렸다. 목숨을 건진 힐렐은 치료를 받았다. 이 일로 예시바에서는 힐렐에게 돈을 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게 해 주었다. 힐렐은 열심히 공부하고 수련해서 가장 유명한 학자이자 랍비가 되었고, 또 훌륭한 제자들을 많이 키워냈다.

힐렐의 이야기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다. 그 후부터 유대인 학교에서는 수업료를 받지 않는 전통이 생겼다. 이 전통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와 이스라엘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학비가 전액 무료이다.

## ■ 자녀교육을 가장 중시하는 유대인

유대인들은 일찍이 교육을 통해 글을 읽고 쓰는 능력을 갖추었다. 과거 유럽의 일반 대중들이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던 것에 비하면 비교 우위에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교육기관인 예시바에서 토라와 탈무드를 읽기 위해 글을 배웠다. 가난 속



에서도 글을 배우는 것을 우선시했다.

이스라엘은 건국 직후부터 제도적으로 5~14세의 모든 아동들에게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1978년부터는 16세까지는 의무교육, 18세까지는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건국 이후 세계 각지에서 이주해 온 유대인들이 자손 대대로 거주해 오던 국가의 문화와 그들 공동체의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옴에 따라 그것이 중동, 북아프리카, 서유럽의 여러 요소들과 혼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을 형성하게 되었다. 인구도 계속 늘어 이스라엘 건국 10주년 무렵에는 2백만 명을 넘어섰다.

OECD는 2000년부터 3년마다 여러 나라의 학생 학업 성취도를 평가하는 PISA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이는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등을 평가한 것이다. 2012년에는 총 65개국의 학생 51만여 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한국은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읽기 1위, 수학 2위, 과학 4위를 기록한 데 비해 이스라엘은 읽기 26위, 수학 30위, 과학 30위에 머물렀다. 즉 이스라엘 학생들의 수학이나 과학 성적은 뒤에서 다섯 번째란 뜻이다.

국제교육성취도 평가협회인 IEA에서 4년마다 각국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를 평가하는 TIMSS에서는 한국이 수학 2위, 과학 4위를 했지만, 이스라엘은 수학 24위, 과학 25위였다.

15세, 즉 중3 때 이런 성적을 거두는 유대인들이 왜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비리그를 30퍼센트 정도 차지하고 노벨상의 30퍼센트를 차지하는지 미스터리가 아닐 수 없다. 읽기나 수학 성적이 세계 1, 2위를 다투고, 세계 올림픽아드 역시 1, 2위를 기록하는 우리가 노벨상을 가장 많이 차지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유대인들은 성적을 좋게 받고 높은 등수를 차지하고 지식을 외우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교육은 난 사람이 아닌 된 사람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유대인 교육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법을 지키는 사람, 바르게 생각하는 사람,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 모토이다. 왜 그럴까? 보는 사람이 없어도 유일신께서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대인 교육은 잘사는 교육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사람을 세우는 교육이다. 목표, 결과보다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세우는 교육인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교육 방법의 비결이 무엇인냐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 “대화과 토론으로 학생 스스로 깨닫도록 한다.”는 대답이 나온다. 교사들이 주제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토론을 유도한다. 대학에서도 교수와 학생이 토론을 통해 두뇌싸움을 하는 일이 많다. 교수는 학생이 문제를 제대로 이해했는지 끝까지 파악하려고 한다.

학교에서도 그렇지만 이들 성공의 배경에는 가정의 대화 토론 교육이 있다. 이스라엘의 직장인 대개 주 5일 근무로 오전 7~8시부터 오후 3~4시까지 일한다. 전국 어디에나 있는 보육시설도 오후 4~5시까지 아이를 맡아준다. 그 이후로는 집에서 가족들과 지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부모는 자녀와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고 토론한다.

미국으로 이민한 한국 사람들 중에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이민을 선택한 경우가 많다. 때문에 한국인의 교육열은 미국에서도 유명하다. 한국인들이 가는 학교는 대부분 좋은 학군에 속한 곳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 한국인이 찾아가는 좋은 학군은 어김없이 유대인 동네다.

유대인이 많이 사는 뉴욕 지역의 경우 초중고 교사의 30~40퍼센트가 유대인이고, 학부모 모임도 대부분 유대인 학부모들이 이끌고 있다. 하버드나 예일 등 아이비리그 대학의 경우 법대와 경영대, 의대 등에 입학한 학생 30퍼센트가량이 유대인이고 교수도 많은 수를 차지한다.

유대인은 자녀의 교육을 무엇보다 우선한다. 그들은 공부하는 것이 유일신의 뜻에 가장 맞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녀를 교육시키는 것이 유일신에 대한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유대인의 교육열은 교육을 중시하는 독특한 종교적인 가치체계에서 기인한다. 유대교에서는 인간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을 닮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신의 형상에 가깝게 만드는 교육은 다른 무엇보다도 인간의 가장 중요한 의무로 간주된다. 유대인 중에서 가장 지적인 사람은 유대 사회를 이끄는 랍비가 된다. 교육자이자 교사인 랍비는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다.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토라를 가르치고 ‘교육’시킨다. 그들은 세 살 아이에게 꿀로 만든 칠판에 히브리어 알파벳을 적어 그것을 혀로 핥으면서 글자를 깨치게 한

다. 또는 알파벳 모양의 과자에 꿀을 발라 먹게 한다. 어린 시절부터 배우는 것은 달콤하고 좋은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이 교육을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고난의 역사에서 비롯된다. 유대인들의



유대인 어린이들은 책을 읽으면서 짹을 지어 대화하는 것이 일상적인 습관이다.

역사는 한 마디로 고난의 역사다. 고난은 최고의 교사이며, 그런 고난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되었다는 말이다. 《지붕 위의 바이올린》의 작가 솔렘 알레이헴은 “유대인은 항상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설치된 도서관에는 어린이들이 아주 자유로운 자세로 책을 읽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이 언제 여행을 떠나도록 강요받을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썼다. 살던 곳에서 쫓겨나 다른 곳에 가서 살려면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과 지혜, 기술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에게 지성은 생존을 위한 무기였던 것이다.

교육에 대한 유대인들의 태생적인 열의는 유대인들이 금융, 법조, 언론, 첨단산업 등 지식산업에 유난히 강하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 또한 전체 노벨상 수상자 중 유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에 가깝게 만들었다.

유대인들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은 그들이 선천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앞서 교육에 눈을 돌렸고 잘나가는 유럽과 미국이라는 기차에 승차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새로운 사상과 발명품은 미국이나 유럽에서 태어나고 공부한 유대인들에 의한 것이지 중동이나 아프리카에 살던 유대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태양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새로운 것은 기존 물질이나 사상의 재조합이다. 기존 질서를 끈기 있게 관찰하거나 자료를 읽고 그것을 글로 정리하면서 통일된 질서와 원칙을 찾아내는 것이 일반적인 창조의 방법이다.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뛰어난 두뇌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꾸준한 노력과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이런 창의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들의 대화와 토론 교육, 하브루타이다.